

자의식과 자을

작가 오승휘

자이델(Ina Seidel)은 독일의 여류작가였다. 온아하고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경험으로 신과 인간성애의 사랑을 읊었으며, 소설에 있어서는 특히 모자(母子)문제를 깊이 추구하였다. 남동생(S.Willy)도 작가이고 남편(H. Wolfgang S.)은 독사이며, 그러한 집안 분위기속에서 자이델은 우수한 소설을 많이 썼다. 작품에는 시집으로 <<시집>>, 소설로는 <<미로(迷路)>>와 <<선택 없는 길>> 등이 있다.

철학에서의 자아(自我:ego)는 인식(認識)의 주관(主觀)이다. 곧 의식자가 탄 의식자나 대상에 대하여 자기를 구별한 것인데, 객아(客我)와 대칭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인격 구조의 중심부면이다. 개체행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주체적 조건으로, 비아(非我)와 대칭이 된다. 경험의

여러 면에서 이를 통일하는 자아(自我)에 관하여 갖는 반성(反省)의식의 총칭이 자의식(自意識)이다. 자아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외계의 의식에 대립하는, 자아에 대한 의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의식상태이다.

따라서 자아감정으로서 무엇에 친근감(親近感)을 갖는가에 따라서 심리학적으로는 여러 계층(階層)이 있다. 즉 자기의 신체(身體)와의 관계, 신체에 속하는 물질과의 관계, 사직에서 공존(共存)하는 타아(他我)에 대한 관계, 종교적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 자아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外的)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순수히 내적인 반성(反省) 의식에만 자아를 의식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철학상으로는 최후의 순수 의식

아(純粹意識我)에 따르는 의식단을 가리킨다. 이때 자의식이란 반성의식이나 자각의식과 같은 뜻으로서 어떠한 행동이나 판단에 당하여 무반성(無反省) 혹은 무의식으로 그것을 행함에 명확한 자기의 승인과 동의(同意)하에서 행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자율(自律)은 자기가 자신에게 규율을 주는 것으로, 타율의 대칭이다. 윤리학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것(self-restraint)이다. 또 칸트의 윤리사상으로, 실천이성(實踐理性)이 스스로 도덕률을 세워 여기에 복종하는 일(autonomy)이다. 본래는 정치적 자주독립의 뜻이었으나, 칸트(Kant)에 의하여 윤리학의 중심개념이 되었다. 그에 의하면 종래의 윤리학이 도덕률을 신의 의지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적 충동이나 또는 이타적인 도덕적 감각, 자기 완성의 요구 등에 두고 의지를 규정하는 법칙을 의욕의 대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타율(他律)이라 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율이란 의욕의 대상의 성질에 의존하지 않고 의지가 그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 의한 법칙인 의지의 성질과 구조라고 한다.

자율의 원리는 <주관적 규정원리(主觀的

規定原理)인 그대의 의지의 격률(格率:명제와 공리)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여야 한다>라는 정언적 명법이다. 이 도덕률의 보편 타당성은 그것이 이성 자신의 아 프리오리(a priori)한 법칙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므로 이성의 자율은 인간성이 자기 목적으로서 결코 수단이 되면 안되는 존엄(尊嚴)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아 프리오리”란 연역적(演繹的:deductive)인, 선천적인, 선형적(先驗的)인 것으로, 아 포스테리오리(a posteriori)와 대칭이 된다.

그러나 인격의 존중과 자율이라는 칸트의 새로운 개념은 절대적인 진리를 논하는 관념론의 절대주의(absolutism)에서의 경찰제도의 비굴한 구속성(拘束性)으로부터의 해방의 요구이다. 또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간성의 존엄을 실현하려고 주장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프랑스의 작가 드릴라당(V. de L'Isle-Adam)의 단편소설집으로 1883년에 간행된 책이 <<잔혹(殘酷)한 이야기>>(Les Contes Cruels)이다. 망각과 환영(幻影)의 세계에서 죽은 아내와 생전과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

는 어느 귀족을 그린 <<베라>>, 중상을 입은 스파르타의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몰래 도망했다고 오해되어 애인이나 군중에게 조소를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군중의 초조>>, 어느 청년이 다른 남자에게 변심한 애인에게 예술가의 감정 승화(感情昇華)를 설득하고 조용히 권총으로 자살하여 죽어가는 <<감상(感傷)주의>> 등 28편을 수록(收錄)하였다.

여기에는 현실로부터의 탈출, 이상의 추구, 우중(愚衆)에의 조소, 풍자, 속세(俗世)에서 초연(超然)하는 고고(孤高)한 자세가 엿보이고 있다. 과학(科學)은 어

떤 영역의 대상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활동, 또는 그 성과의 내용을 말한다. 과학단능주의란 모든 문제는 과학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실증주의는 철학의 방법이 과학의 방법과 같다고 보는 근대철학의 한 사조이다. 과학에 의하여 얻어지는 지식의 총체(總體)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입장이다. 콩트·마하·아베나리우스 등이 그 대표적 철학자인데, 실증론·실증 철학·적극주의라고도 한다. 실증(實證)주의나 과학단능주의를 공격하는 각자의 신비적 이상주의가 그 근저에 깔려있는 바탕이다. 301